

2021 辛丑年 신라그룹 新年辭

신라그룹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라그룹의 반세기 역사에 많이 힘들고 고단했던 경자년을 보내고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이자 출발점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신라그룹 임직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지구촌 전체의 사회와 경제가 붕괴하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현실적 상황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신라그룹 주력계열사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며 지금껏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체질개선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계열사의 약진이 다소나마 위안이 됩니다.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New Normal 시대에 우리 신라그룹의 향후 방향성은 코로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시장을 선점,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라그룹은 현재 사업의 Risk를 찾아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외부환경에 흔들림 없는 역량을 갖추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며, 다음 세가지를 올해의 경영화두로 정했습니다.

첫째,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 신라그룹 계열사의 조직은 피라미드 형식의 수직적 경직적 구조로 인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의 운용을 통해 높은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평적 조직으로 재편, 유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적인 조직구조로의 변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계열사가 2021년부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설정,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은 더 이상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 중심을 통한 체질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래성과가 측정되지 않고 단순한 긴장감 고조를 위한 인력 및 조직 개편은 더 이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뿐 아니라 현재 각 사 주력사업의 계속성 또한 담보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과 연계한 능력경쟁을 통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전문적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는 과감한 투자 및 발탁을 통해 미래 사업에 대한 도전과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화두는, Paradigm Shift입니다.

특히, 2020 년은 코로나 19 로 인해 많은 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패러다임 전환실행을 통한 체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가 빠른 시대를 읽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존 방식으로 하려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귀찮은 것은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시대에 낙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과 관념을 타파하고 새롭게 발상을 전환하여 정형화된 룰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시도할 때 분명 미래 사업은 창조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신라 가족 여러분!

우리 신라그룹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외부환경으로 인해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큰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백척간두에 선 각오로 상기 3 가지의 키워드를 목표로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의 정신으로 그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비로소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2021 년은 큰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검약과 정직의 가치를 지키고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생의 경제질서가 만들어 지고 지속가능한 부의 창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그룹은 코로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승화시켜 이 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미래 글로벌 기업으로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1 년 1 월 4 일

신라홀딩스 대표이사 신용문